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성찰과 나아갈 길



글로벌 교육2030 의제

교육 분야 유엔 전문기구로서 유네스코는 2030년까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통해 빈곤 해소를 위한 범세계적 운동의 일환으로 ‘교육 2030 의제’(Education 2030 Agenda)를 주도하고 조정해 나가는 임무를 띠고 있다. 모든 지속가능발전목표의 달성에 필수적인 교육은 그 자체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과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 기회 증진”이라는 지속가능발전목표 4번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육 2030 실행계획은 이 야심찬 목표와 책무를 실행해 옮기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유네스코(교육 부문 평화·지속가능발전국, 마하트마 간디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는 2017년 6월 28-2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세계시민교육(GCED)을 위한 민족주의적 관점과 그 함의”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책의 원본은 유네스코가 이 세미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기반해 지난 2018년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rise of nationalist perspectives: Reflections and possible ways forward”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이다.

원제: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the rise of nationalist perspective: Reflections and possible ways forward*

CC-BY-SA 3.0 IGO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라이선스에 따라 2018년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 출간

한국어판

세계시민교육과 민족주의적 관점의 부상: 성장과 나아갈 길

한국어판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9

본 한국어판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이 책은 유네스코의 공식 발간물이 아니며, 이와 같이 간주되어서도 아니됨을 밝힙니다.



이 책은 오픈 액세스 정책에 따라 다음의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Attribution-ShareAlike 3.0 IGO’(CC-BY-SA 3.0 IGO) license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sa/3.0/igo/>)

이 책의 내용을 활용할 시에는 유네스코 오픈 액세스 기록관(UNESCO Open Access Repository)의 이용약관(<http://www.unesco.org/open-access/terms-use-ccbysa-en>)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모든 명칭과 자료는 특정 국가나 영토, 도시나 지역의 법적 지위, 각 지역 당국의 법적 지위, 국경, 경계 구획에 관한 유네스코의 입장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이 책에 표현된 필자의 생각과 의견이 유네스코의 그것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 유네스코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발간일 | 2019년 5월 31일

펴낸곳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번역 | 김용범(번역원 알바트로스)

교열 |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교육팀

조판편집 | 정명진

그래픽 디자인 | 오렐리아 메요제(Aurélia Mayozer)

표지 사진 | 유네스코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유네스코길) 26

홈페이지 | www.unesco.or.kr

이메일 | ed.team@unesco.or.kr

ISBN | 9788994307879 03370

한위간행물등록번호 | ED/2019/BK/1

세계시민교육과

민족주의적 관점의 부상:

성찰과 나아갈 길

목 차

1. 서문	2
2.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한 이해	2
3. 세계시민교육(GCED) 내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오해	6
4.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의제 진전을 위한 권고	8

1. 서 문

왜 이 책을 발간하는가?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의 부상을 목도해왔다.¹⁾ 이에 관해 평론가들은 배타성과 외국인 공포증, 때로 인종주의적 주장과 공공장소 내 폭력적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경제적 보호주의에 더욱 중점을 두는 현상에 대해 언급해왔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능력·가치·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유네스코 교육 분야의 핵심 사업인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에 있어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이 책은 무엇에 관한 것인가? 이 책에서는 민족주의적 관점이 부상하고 있다는 증거 및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세계시민교육이 어떠한 도전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은 유네스코의 사업과 더불어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다른 교육 종사자들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자 한다.

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책은 2017년 6월 유네스코가 개최한, 민족주의적 관점의 뚜렷한 부상과 그것이 유네스코의 세계시민교육 사업에 있어 갖는 함의에 대한 어느 세미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²⁾ 이 세미나에는 전 세계 다양한 분야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였으며, 이들의 발표 및 기여는 이 세미나를 준비하고 방향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토대에는 2015년으로부터 2017년까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교육 정책 입안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일련의 역량구축 워크숍에서 얻은 지식 및 아이디어도 포함되어 있다.

2. 민족주의의 부상에 대한 이해

2.1. 정의의 문제

단일한 정의는 없다. 이 주제에 대한 수많은 학문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대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정의는 없다. 게다가 이 용어는 정치적 수단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정치적·문화적·지리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른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어떤 맥락에서는 민족주의가 국가 건설과 국민 통합을 추진하는 긍정적인 힘으로 간주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예컨대 탈식민화 과정에서는 주로 해방 운동에 결부되기도 했고, 민주화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적용되었다. 또 다른 맥락에서 민족주의는 자국민이 ‘외국인’(non-native)으로 간주되는 특정 집단³⁾을 배제하는 이념이 될 수도 있고, 권위주의와 강한 연관성을 가질 수도 있다. 사회 현상으로서의 민족주의는 다른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다른 정치 이념과 결합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민족주의에는 감정이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에게 민족주의는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나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들에게는 공포, 분노, 복수심, 억울함의 감정과 관련된다.

‘잠재된 배타적 민족주의’ 대 ‘맹렬한 배타적 민족주의’

민족주의의 유형을 구분하는 보다 유용한 방법은 민족주의를 ‘잠재된 배타적 민족주의’(latent exclusionary nationalism)와 ‘맹렬한(또는 폭력적인) 배타적 민족주의’(virulent (or violent) exclusionary nationalism)로 나누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민족주의를 기존 질서를 위협하는 민족주의와, 잠재적으로 폭력적인 측면은 적지만 보다 안정적인 민족주의로 정확히 나눌 수 있게 해준다.

1) Economist. 2016. League of nationalists. 19 November. Bremmer, Ian. 2017. The Wave to Come. Time, 11 May. Available at <http://time.com/4775441/thewave-to-come/>.

2) 이 세미나는 유네스코(교육 부문 평화·지속가능발전국, 마하트마 간디 평화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주최로 2017년 6월 28-29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렸다.

3) Mudde, Cas. 2016. On Extremism and Democracy in Europ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민족주의의 개념화

강도의 수준	
배타적 수준	포용적·잠재적 민족주의 (inclusory latent nationalism)
	포용적·폭력적 민족주의 (inclusory virulent nationalism)
배타적 수준	배타적·잠재적 민족주의 (exclusionary latent nationalism)
	배타적·폭력적 민족주의 (exclusionary virulent nationalism)

2.2. 배타적 형태의 민족주의

이 책은 특히 폭력, 증오, 차별을 낳을 위험성이 있는 가장 폭력적이고 배타적인 형태의 민족주의에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형태의 민족주의는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⁴⁾과 「유엔 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⁵⁾에 배치되며, 인간의 존엄성과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우리 대 그들’ 배타적 민족주의의 핵심에는 ‘집단 내’ 구성원들이 자신들이 ‘외부자 집단’(외국인, 이민자, 소수자, 엘리트)보다 우월하거나 그들로부터 위협받는다는, ‘우리 대 그들’ 식의 경직된 인식 체계가 이끌어 낸 세계관이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대개 권위주의, 음모론, 엘리트 집단에 대한 증오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보다 정밀하고 다차원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상반된다.

조화에 대한 부정적 환상. 게다가 배타적 형태의 민족주의는 공동체가 정치를 초월한다는 환상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환상은 공동체가 충분히 ‘동질적’(homogeneous)이라면 정치 영역에서 공공 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또한 조화로운 합의는 자연히 ‘국민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식된다.

결정적 사건. 배타적 형태의 민족주의가 더욱 맹렬해지는 데 있어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은 논의의 내용을 양극화하고 사람들을 대립시킨다. 결정적 사건은 이념적이거나, 경제적이거나, 제도적이거나 사회적인 성격을 띠 수도 있다. 예컨대 갑작스런 이민자의 유입, 극단적인 선거 캠페인, 일련의 테러 공격이나 흉악스런 범죄 같은 사건들 말이다. 쉽게 해소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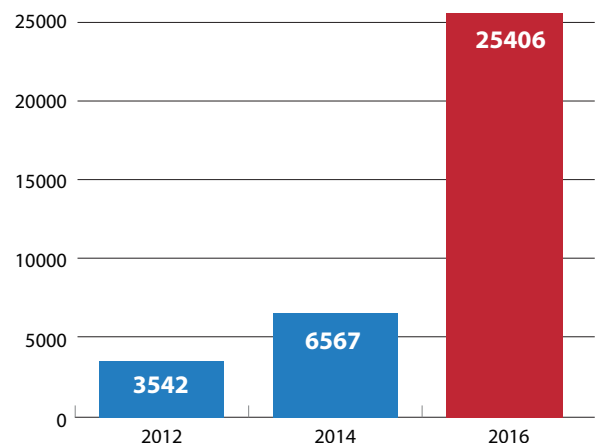
않는 갈등 및 분쟁 또한 배타적 민족주의 정당을 지원하고, 폭력적인 공격을 분출시키는 데 원인이 되는 감정을 제공한다.

2.3. 배타적 민족주의는 전 지구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그 증거는?

민족주의적 태도의 불확실한 증가. 민족주의는 두 가지 이유에서 측정이 매우 어렵다. 첫째는 특정 태도와 그 태도의 사회적·정치적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둘째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민족주의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민족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대체 수단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민족주의의 부상을 고려할 때, 우리는 단지 추세와 양상만 파악할 수 있을 뿐 이들을 규정할 수는 없다. 2016년까지 수집된 전 세계의 민족주의적 태도를 분석한 자료에서는 ‘타국인에 대한 신뢰,’ ‘국가에 대한 자부심,’ ‘고립주의,’ 또는 ‘다른 정체성보다 우위에 있는 민족적 정체성’과 같이 개인적 태도에 있어 괄목할 만한 변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⁶⁾⁷⁾ “국가가 자국의 문제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각 개인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지에 관한 퓨 글로벌(Pew Global)의 여론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과 2016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더욱 심한 고립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뚜렷한 추세는 없었다.⁸⁾

그래프 1: 주로 미국에 소재한 주요 백인 민족주의 운동 본부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트위터 계정 팔로워의 증가 현황

출처: J. M. Berger (2016)



4) <http://www.un.org/en/universal-declaration-human-rights/>.

5) <http://www.un.org/en/charter-united-nations/>.

6) World Values Survey, notably Waves 5 (2005-2009) & 6 (2010-2014). Available at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jsp>.

7)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국민보다는 민족 집단의 구성원으로 인식한다. “나는 (국민)이라기보다는 (민족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또는 “나는 그저 (민족 집단)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아프로바로미터(Afrobarometer)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홈페이지 주소(<http://afrobarometer.org/surveys-and-methods/survey-topics/identity>)를 통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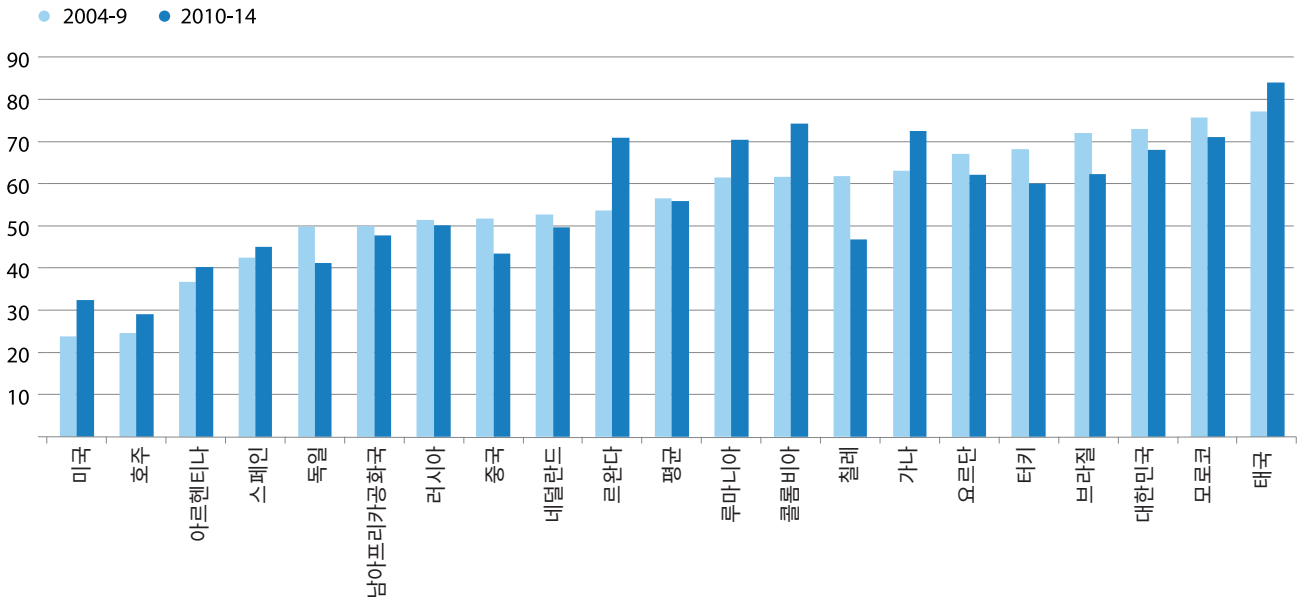
8) 퓨 글로벌의 여론조사 자료는 관련 홈페이지 주소(<http://www.pewglobal.org/>)를 통해 볼 수 있다. 이 설문조사에서 던진 질문은 “국가는 자국의 문제를 스스로 다루어야 하는가, 아니면 다른 국가가 다루도록 내버려둬야 하는가?”였다.

이들 여론조사의 결과는 최근 전 지구적으로 민족주의적 흐름이 증가하거나, 사람들이 배타적·폭력적 민족주의적 태도를 갖게 되는 뚜렷한 변화는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족주의적 관점을

선호하는 인구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재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시기상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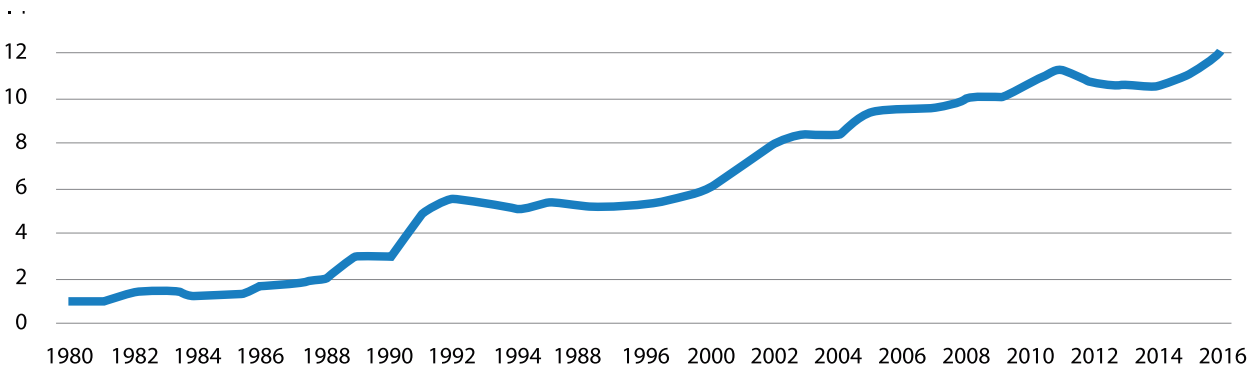
그래프 2: 타국인들에 대한 신뢰 수준

출처: World Values Survey Waves 5 and 6



그래프 3: 서유럽의 급진적 극우정당의 부상 현황(1980-2016)

출처: Milačić & Vuković (2017)



민족주의 정치의 뚜렷한 부상. 2016년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민족주의적 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지만, 많은 국가들에서 민족주의 정치에 대한 표현, 가시성, 수용이

명백히 증가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신·구 민족주의 정당의 증가 그리고/또는 기존 정당의 입장 변화를 통한 선거에서의 승리를 통해 가장 뚜렷이 나타난다.

증오 범죄의 증가.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가 득세하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는 지난 해 나타난, 양극화된 선거 캠페인 같은 결정적 사건으로 촉발된 증오 범죄의 증가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한 결정적 사건 이후 얼마간 폭력의 수위는 낮아졌지만, 그 건수는 과거보다 많아졌다. 이는 민족주의적인 외국인 혐오의 태도가 보다 많이 용납되고, 이에 따라 과격한 개인이나 집단이 그러한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느낌으로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념의 변화를 반영한다.

가속화의 위험. 이러한 맥락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정치의 부상과 민족주의적 표현에 대해 더욱 관용하는 태도는 보다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야기하거나 부추길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면, 민족주의 정당의 부상이 전반적인 민족주의적 흐름의 결과는 아닐 수 있어도, 장래에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증오 범죄에 대한 범세계적 모니터링이 부재하다
국가 차원의 증오 범죄 관련 자료들을 찾을 수 있는데, 그 예로 다음과 같다.
* 미국: 증오범죄 통계국(Hate Crime Statistics), 법무부, 미연방수사국(FBI) (https://ucr.fbi.gov/hate-crime/2015)
* 프랑스: 국가인권위원회(CNCDH)(www.cncdh.fr)
지역별 차원의 자료는 유럽 안보협력기구(OSCE)에서 제공한다. (http://hatecrime.osce.org/what-hate-crime/racism-and-xenophobia)

2.4. 근본적 원인 및 조장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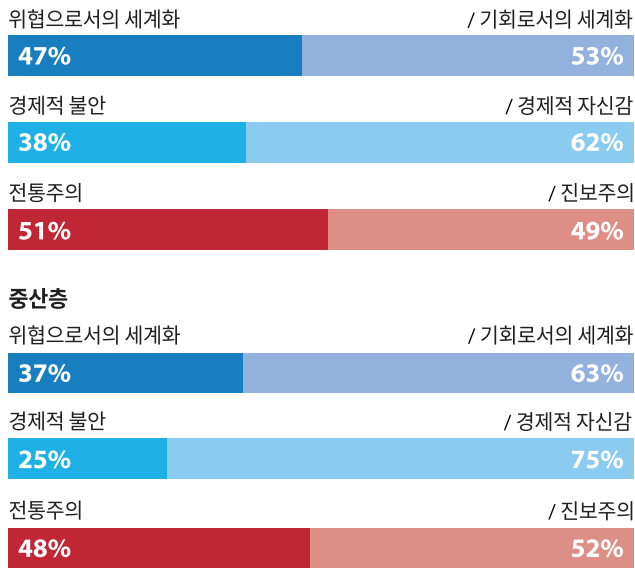
민족주의 정치의 발흥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공적 영역 내 민족주의 정치적 표현의 수용 사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을 정리해볼 수 있다.

실질적 경제 불평등 및 관련 인식, 생활 수준의 저하. 특히 2008년 전 지구적 경제 위기 이후로 경제적 불평등은 오늘날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은 매우, 때로는 극도로 불공평하게 분배되고 있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도 통용되는 사실이다. 게다가, 특히 선진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의 생활 수준이 자신들의 생활 수준보다 반드시 나아지지는 않으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경제적 수준 향상에 대한 전통적 기대도 허물어지고 있다. 사람들은 마땅히 누려야 할 혜택과 특권을 상실하고 있다는 느낌(‘마땅하다고 인식되는 권리의 상실’)을 가질 수 있다.

경제 세계화와 변화하는 직업의 세계. 일부 국가에서 생활 수준의 저하는 경제 세계화와 근대화된 경제의 탓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제 세계화는 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해외로 일자리가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 있다. 근대화되고 있는 경제는 전통적 일자리가 자동화로 대체되고 있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한다. 예컨대 가동을 멈춘 공장 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고립되었다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프 4: 노동자 계층은 중산층보다 세계화를 더 두려워한다.

출처: eupionions.eu - Bertelsmann Stiftung (2016)



문화적 불안. 경제 세계화에 대한 공포는 흔히 점점 더 개인의 통제력을 벗어나, 빠르게 발전하는 세계에 대해 만연한 불안감과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명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던 사회 환경은 이제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다. 그로 인한 모든 감정은 강한 피해자 의식을 수반하면서 우리 자신도 타인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를 배경으로 타인들이나 소수자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예컨대 소수 인종, 성적 지향성이 다른 사람들, 여성, 소위 ‘자유주의 엘리트,’ 형평성 조치의 수혜자인 사람들)은 위협적인 존재나 부당한 이득을 누리는 사람들로 인식된다. 이것이 정당하든 아니든, 이러한 방향 상실의 느낌은 실재하고 있으며 이에 올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 및 정치제도에 대한 불신과 전반적 무력감. 민족주의적 관점은 또한 정치 제도 및 과정의 정당성의 위기—실재하는 위기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이든—와 연계될 수 있다. 여기에는 기존의 정치과정이 정치 신인에는 막혀 있거나 소외된 이들의 진정한 정치적 참여를 보장하는 통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그 느낌이 타당한 것이든 아니든—이 포함된다. 이러한 느낌은 정치 지도자들이 신뢰할 만한 정치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경제 세계화 같은 초국가적 현상 앞에서 전통적 정치 제도는 무력하기만 하다는 느낌과 결합되어 있다.

촉진 요인으로서의 디지털 혁명. 위에서 제시된 근본 원인은 인터넷 같은, 보다 일반적으로는 소위 디지털 혁명과 같은 다양한 촉진 요인에 의해 확대된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이제 모두가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뉴스는 더 이상 기성 매체의 편집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는 대로 정보를 전달하는 개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되었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반향실(echo chamber)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신들과 유사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만 어울리고 교류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고, 그 결과 공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정당한 표현의 기준도 바뀌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정주의가 득세하고 음모 이론이 판을 치고 있다. 디지털 혁명은 가장 극단적이고 배타적인 목소리를 포함해 소외받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욱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 있게 만들었다. 소셜 미디어와 인터넷은 대중 선동가들이 편견과 무지를 이용해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도구를 제공한다.

3. 세계시민교육(GCED) 내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오해

세계시민교육(GCE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이란 무엇인가?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지역적·국가적·국제적으로 범세계적 도전 과제와 마주하고 이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정하고, 평화롭고, 관용적이고, 포용적이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세계에 주도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와 인권 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세계시민교육은 개개인이 국제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 행동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세계시민교육은 교육과 관련된 지속가능발전 4번 목표 중 세부목표 4.7⁹⁾의 핵심 요소다.

세계시민교육의 핵심 개념 영역¹⁰⁾

인지적 영역

세계와 지역, 국가, 자기 고장의 현안 문제, 타국 및 타 국민들과의 상호연결성 및 상호의존성에 대한 지식과 이해, 비판적 사고능력을 갖추는 것

사회·정서적 영역

가치와 책임감, 공감 능력, 연대 의식,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공유하면서 보편 인류에 대한 소속감을 갖는 것

행동적 영역

보다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지역, 국가, 세계의 차원에서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

9)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세부목표 4.7(교육 관련 SDG4)는 국가가 “모든 학습자들이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방식, 인권, 양성 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시민의식, 문화다양성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 UNESCO's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opics and Learning Objectives, available at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3/002329/232993e.pdf>.

내재적 긴장과 가능한 오해들. 세계시민교육이 교육의 주류 담론으로 자리 잡으면서 그 개념을 둘러싼 해소되지 않은 긴장과 오해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 때문에 세계시민교육이 천차만별의 양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그 같은 오해를 제대로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긴장과 가능한 오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지구적인 것 대 지역적인 것.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국제적·지역적 수준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지구적 연대 의식이라는 이상과 인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촉진한다. 그러나 많은 이해당사자들은 여전히 지역에서의 행동이 어떻게 범세계적 변화와 연결되는지,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지역공동체에 속하는 개인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에 대해 뚜렷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때로는 지역이 가진 희망사항, 지역의 사정, 그리고 지역 내 활동보다는 전 세계의 난제에 대응할 필요성을 지나치게 우선하는 고결한 이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또한 개인에게 일생 동안 주어지는 많은 기회는 대개 국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세계시민교육이 국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개인 대상 교육 대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교육.

세계시민교육은 개인의 지식, 기술, 태도, 가치관을 발전시키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권리 향유와 행사 능력을 결정하는 거시적인 사회적·구조적·정치적 맥락을 문제 삼는 데는 관심을 덜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는 세계시민교육이 젊은이들을 공공의 삶(civic life)으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는 살균 처리된—

혹은 비정치적인—변화의 비전을 추구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도전 받는 환경 내 세계시민교육의 연관성.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 실행은 그러한 교육의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은 특정 맥락에서는 자원이 부족하고, 갈등 상황에 처해 있으며, 오지에 위치해 있고 혜택에서 제외된 교육 환경에는 적용될 수 없는 접근 방법으로 인식된다. 세계시민교육의 일부분인 평화교육¹¹⁾이 사회 통합을 이루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의 기본 수요로부터 단절된 사치성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국가적 단합과 사회 통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국가에서는 시민교육의 전지구적 측면을 우선시하기가 어렵다.

실행의 어려움을 내포한 기대 목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유네스코의 해석은 학습자가 책임감 있고 사회 참여적인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지적 기술, 사회·정서적 기술, 행동적 기술의 개발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이러한 이상을 실제 적용하는 것은 벅찬 과제로 보이기도 한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적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 3가지 학습 영역을 모두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거나, 이를 어렵게 생각하기도 한다. 책임감 있는 정치 참여 능력을 비롯해 감정 대응 능력을 계발하는 것은 교사들에게는 특히 벅찬 과제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은 교육 부문 전반에 걸쳐 심오한 변화를 견인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새로운 주제로 알려질 위험이 있다.

11) “Promotion and Implementation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risis Situations.” 2017년 유네스코 교육 부문에서 의뢰한 문서로, 티나 로비올레(Tina Robiolle)가 작성했다. <http://unesdoc.unesco.org/images/0025/002527/252771E.pdf>.

4.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의제 진전을 위한 권고

전 지구적으로 민족주의적 관점이 눈에 띄게 부상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래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한 모든 주장은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배치되며, 이에 따라 교육에 있어서도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다음의 권고 사항은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안함으로써 그 같은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자 마련된 것으로서, 이는 보다 평화롭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변화의 유형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비전

1. 핵심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세계시민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고, 최소한에서부터 최대한의 접근법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실행 가능하다. 예컨대 세계시민교육은 평화적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갈등 해결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증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는 세계시민교육을 보편 인류에 대한 소속감 및 전지구적 연대 의식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적 책무로 구체화할 수도 있다. 이 모든 행동은 세계시민교육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련의 유효한 엔트리 포인트(entry point, 실행의 시작점)의 연속체 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접근 방법의 핵심에는 평화롭고 품위 있게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이 있다. 유네스코와 그 외 세계시민교육을 정진하는 다른 기관들은 세계시민교육이 어떻게 이러한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어야 한다.

2. 지역적·국가적 맥락화 및 구축. 세계시민의식에 관한, 그리고 이를 위한 학습은 지역의 가치, 세계관, 전통을 결합하고 그에 기반해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시민교육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세계시민교육의 염원을 민족의 전통 속에 담아내는 문화적 실천 및 표현을 활용하고 그 가치를 높이 사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미 많은 문화들이 세계시민교육의 염원에 합치하고 이를 전달하는 전통과 관습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의 담론은 새로운 용어 및 개념을 소개하기보다는 이들 문화의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서로 다른 문화적 맥락 속의 사람들이 쉽게 이 교육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¹³⁾. 더 나아가 세계시민교육을 맥락화하는 것은 교육의 내용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지구적 현안을 지역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세계시민교육이 민족 및 부족의 전통과 관습에 조응할 뿐만 아니라, 세계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과 소속감을 더욱 효율적으로 증진시키는 데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기술

3. 건설적인 시민 참여 및 정치 참여. 지역 및 국가의 의사 결정 과정과 방법에 건설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의 시민적·정치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친 모든 단계의 교육에서 우선되어야 한다. 청소년 및 성인이 시민

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비폭력 및 상호문화적 이해에 대한 추상적 규범을 확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12) 한 가지 예로 남아프리카 지역의 ‘우분투’(Ubuntu)라는 개념이 있다.

13) 유네스코는 세계시민교육을 지역의 맥락에 맞게 추진하기 위한 10가지의 지역적 개념을 설명하는 “세계시민교육: 현지화하기”(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aking it local)라는 제목의 지지 문서를 2018년 10월에 발행한 바 있다.

4. **자아 인식 및 감정 지능.** 공포, 분노, 억울함, 불안과 같은 감정은 배타적 형태의 민족주의에 이끌리게 만들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러한 감정에 생산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보다 많은 중요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통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5. **비판적 탐구.** 다양한 출처의 정보에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세계화된 세상에서, 학습자들은 공포와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수준의 복잡성에 대처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이러한 복잡성을 헤쳐 나가고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일생 동안 배울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한다. 이는 엄격한 검증, 논리, 합리적 탐구에 못 미치는 주장을 분석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탐구 기술을 통해 가능하다.

6. **디지털 시민의식을 위한 역량.** 세계시민교육은 학습자들이 ‘미디어·정보 리터러시’(MIL, Media and Information Literacy)에 책임감 있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미디어의 내용(문자 및 동영상)을 검토하고, 음모이론에 이용되는 정보 출처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MIL 과 디지털 시민의식(digital citizenship)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한다. MIL은 또한 학습자들이 어떤 현안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중요한 역량이다.

접근법

7. **소외 계층을 위한 변화 만들기.** 세계시민교육은 가장 취약하고, 희망이 없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특전이 아닌, 교육의 합리성을 증진하고 인류의 발전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되어야 한다. 세계시민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필요한 폭넓은 기술(인지적 기술, 사회·정서적 기술, 행동적 기술)—개인 간 의사 소통, 갈등 관리, 창조성, 협업, 공감, 감정지능과 같은—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참정권자인 성인을 겨냥하기.** 학교 교육을 마쳤거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사회 모든 분야의 성인 또한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대상이자 이해당사자들이다. 선거 연령에 도달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며, 부모로서의 책임을 지닌 개인들에게 세계시민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9.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재설계.** 학습 과정의 최일선에 있는 교사 및 교육자들은 세계시민교육의 3가지 영역—인지적 영역, 사회·정서적 영역, 행동적 영역—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할 뿐 아니라, 세계시민교육의 내용을 개발하는 데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

10. **파트너십의 확대 및 다양화.** 세계시민교육을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협력자 외에 다른 대상을 살펴보고, 재계, 종교계, 미디어 및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연대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 시민의식(corporate citizenship)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고 사이트



<https://en.unesco.org/themes/gced>



gced@unesco.org



twitter.com/UNESCO

지난 몇 년간 많은 이들이 전 세계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의 부상을 목도했다. 이러한 추세는 교육의 역할에 대해, 특히 교육 분야 유네스코 핵심 사업 영역의 하나로서 학습자들이 세계를 공정하고 평화롭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 가치, 태도를 길러주는 세계시민교육(GCED)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이 책은 민족주의적 관점의 발흥에 대한 증거 및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세계시민교육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 책은 세계시민교육을 지역 및 국가의 맥락에 의미 있게 접목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교육 당사자들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자 한다.